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1실 6국 체제'로 출범

기획조정실 신설·기존 6국 유지 조직 개편 확정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교육서비스 연속성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획조정실 신설과 기존 6국 체제 유지를 골자로 한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통합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통합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유지해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두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미래교육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6개국 체제를 유지한다.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통합 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며 통합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기획조정실 신설은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교육환경과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교육청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 6개국의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설계했다. 학교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 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현장과 밀접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통합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우수 교육정책과 행정 역량을 결합해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교육과 글로벌 교 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조직 정착을 위한 1단계 개편이다. 교육청은 향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공체 의 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직 진 단을 실시하고, 기능·업무 재설계를 통해 분청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체계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 됐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 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18 달맞이 02:21
☁️ 맑음 19:47 달맞이 16:34



광주	☀️	19~24
목포	☀️	19~24
여수	☀️	19~23
순천	☀️	19~22
구례	☀️	17~24
광주	☀️	18~24
신도	☀️	19~25
흑산도	☀️	19~24
진남	☀️	19~25
진도	☀️	19~25

목포	밀물(고)	11:06 / --:--
	썰물(저)	04:41 / 16:52
여수	밀물(고)	06:17 / 19:04
	썰물(저)	00:08 / 12:23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 개발" '체험형' 역할극·골목투어...선조 삶·독립운동사 전달

광주 고려인마을이 청소년 체험형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1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마을 주민관광청 소속 해설사들은 최근 광산구 월곡동 흥법도공원에서 '고려인마을 청소년 역사문화 골목여행' 시연회를 열고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단순한 역사 해설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설사들은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해 역사 단야장을 활용한 퀴즈와 게임, 역할극 등을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했다. 역사 단야장에는 '연해주 이주', '홍법도', '1937', '강제이주', '고려일보', '고려극장', '독립운동' 등 고려인 역사와 관

련된 주요 개념이 담겼다. 참가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고 관련 역사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고려인 선조들의 연해주 정착과 항일 독립운동, 1937년 강제이주의 아픔, 중앙아시아 정착 과정, 민족문화 계승의 역사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고려인문화관 전시관 관람과 해설, 고려인마을 골목투어, 역사 교육 체험, 중앙아시아 전통의상 체험 등과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고려인마을은 앞으로도 연구와 시연을 거쳐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려인 선조들의 삶과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인공폭포의 시원한 물줄기 무더운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인공 폭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언론진흥재단, 고유가에 신문유통 유류비 지원 신문공동수송 기사·신문공동배달센터 대상 3700만원 규모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제)은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신문유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신문유통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이 운영하는 신문공동수송노선의 경우·LPG 차량 운행 기사 31명과 전국 신문공동배달센터장 190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총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문공동수송 기사에게는 유류비 지출 증빙을 확인한 뒤 차량 유형에 따라 40만~60만원을 지원하고, 신문공동배달센터장에게는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지원이 신문유통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신문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서구, 5·18민주화운동 정신 알린다 13·20일 '공원으로 간 민주시민교육' 운영

광주 서구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원으로 간 민주시민'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 거점지였던 국군통합병원(현 5·18군병원) 일대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원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오전·오후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오전에는 이지훈 민족문제연구소 광주 지부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는 스토리텔링형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국군통합병원을 시작으로 가톨릭평생교육원, 5·18역사공원, 505보

안부대 옛터 등 지역의 주요 5·18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한다. 오후에는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오월이야기 퍼즐'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연결하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을 만들어보는 '5·18 전남도청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은 세근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서구청 행복교육과(062-360-7095)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소방관 사망...갑질·음주 강요 의혹 규명을"

지난해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 소방노조와 유가족이 조직 내 갑질과 음주 강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 대표와 노조 조합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소방 간부들의 갑질 행태와 음주 중심의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광주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 광주소방본부 조직문화 개선 촉구 집회 추 대통령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치 문책"

노조는 "유가족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조직관리 실패가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정한 공무상 재해 판단, 손익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유가족의 갑질 요청과 노동조합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역지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새벽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내용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후 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조직문

화 개선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희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갑질조사 요청 목 설 경우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 문책을 하겠다"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희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무면허 음주운전 신고 복수

만년피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주먹을 날리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 제2형사부 원형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2시 15분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6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여기에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이어간 혐의도 적용. 임영진 기자 looks@

"조구성! 엄지성! 대~한민국" 광주대, 체코전 단체 응원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광주 출신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단체 응원전이 12일 오전 광주대학교에서 열렸다. 11일 광주대에 따르면 한국 축구대표팀에는 광주대 축구부 출신 조구성과 광주 금호고 출신 엄지성이 발탁됐다. 광주대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명은 12일 오전 600석 규모의 호심관 1층 대강당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체코전을 관람하며 대표팀과 두 선수를 응원할 예정이다. 광주 금호고도 엄지성 응원전을 검토했지만 경기 시간이 수업 시간과 겹치면서 별도의 단체 응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 구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대 축구부에서 활약했으며, 2020년 U-23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 엄지성은 광주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2024년 U-23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